

“스포티하게”…티볼리, 얼굴이 달라졌네

새 범퍼 디자인, 미래지향적 분위기 물씬
취향대로 커스터마이징, 20~30대 취향 저격
실내 고급감 높여 40~50대까지 고객층 확장



자동차

국내 소형 SUV 판매 1위인 쌍용자동차 ‘티볼리’가 현대차 ‘코나’와 기아차 ‘스토닉’ 등의 신차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을 강화한 티볼리 아머(Armour)와 티볼리 아머 기어 에디션(Gear Edition) 출시했다. 디자인 변경 위주의 마이너 체인지이지만 디자인 강화와 커스터마이징 콘셉트 도입만으로도 현대·기아의 신차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

쌍용자동차 마케팅팀 이석우 팀장은 아머 기어 에디션 출시에 대해 “티볼리 고객들이 원하는 사양을 주문 제작에 가까운 수준으로 적용,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주요 마케팅 포인트다. 쌍용차의 모든 기술 역량을 집결해 론칭했다”고 설명했다.

● ‘티볼리 아머’, 전면 디자인 개선으로 존재감 강화

티볼리 아머의 가장 큰 특징은 전면부 디자인 개선을 통해 SUV 본연의 단단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극대화했다는 점이다. 범퍼 상단에 크롬라인 몰딩과 신규 LED 포그램프를 적용해 차가 더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인다.

티볼리의 장점 중 하나인 투톤컬러 사양도 8가지 모든 차량 컬러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실내 공간은 시트와 도어트림 등 인테리어 전반에 킥팅 패턴을 새롭게 적용해 감성 만족도를 끌어올렸다. 또한 인스트루먼트 패널과 스티어링휠의 버튼 레이아웃도 미세하게 위치를 조정해 조작성을 향상시켰다. 아



쌍용자동차는 17일 서울 강남 콘서트홀에서 상품성을 개선한 티볼리 아머를 새롭게 선보였다. 미식축구 보호구와 메카닉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은 새 범퍼 디자인으로 스포티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더했다. 사진제공 | 쌍용자동차

울러 언더코팅 범위를 확대해 실내로 유입되는 노면소음을 최소화하는 등 NVH(소음·진동 방지) 성능도 강화했다.

● 내 맘대로 디자인한다, ‘티볼리 아머 기어 에디션’

티볼리 아머 기어 에디션(Gear Edition)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주문제작형 콘셉트를 적용한 모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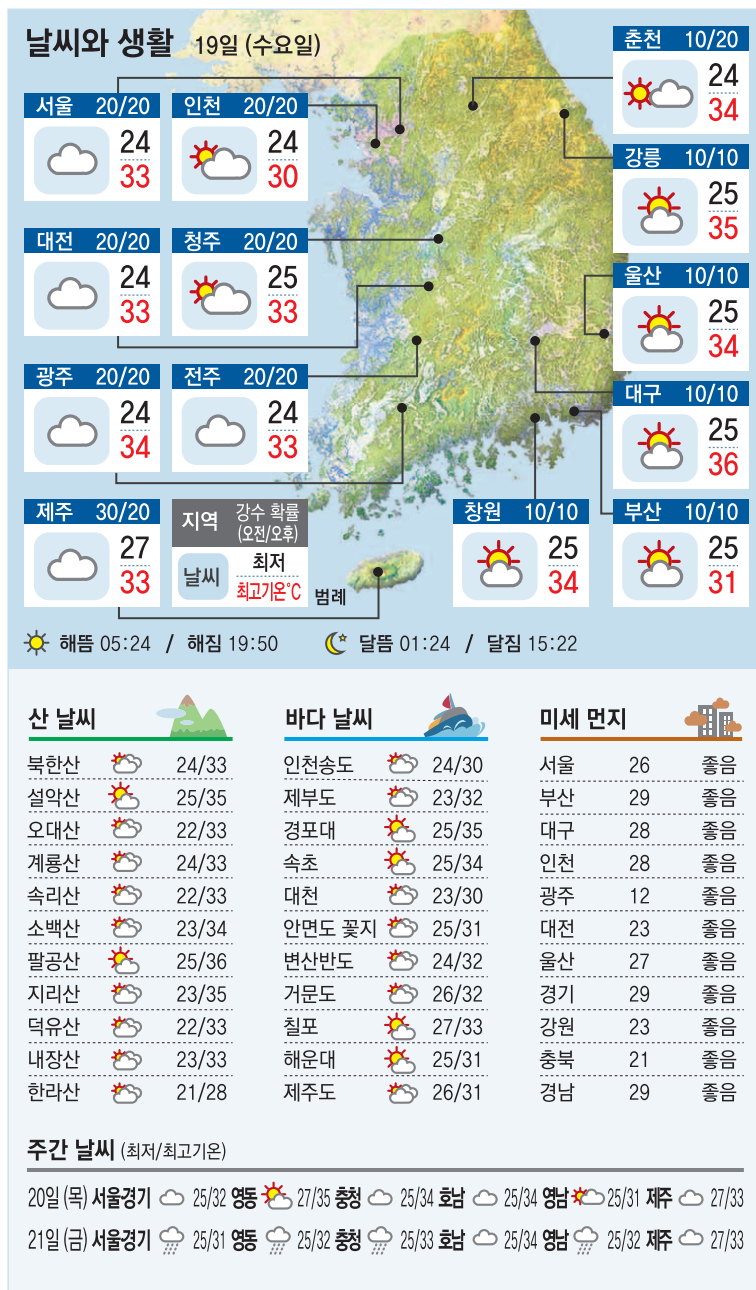
주력 트림인 VX를 베이스로 최고급 쉐빙 가죽시트에 HID 헤드램프 등 선호사양을 대거 추가하고 아웃사이드미러, 리어 LED 원로고 엠블럼, 도어스팟램프, 블랙휠, 루프랙, 데칼 등 다양한 전용 아이템을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조합해 수십만가지의 서로 다른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개성을 중시하는 신세대 소비자들이 남과 다른 나만의 차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혁신적인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한편 기어 에디션에는 브라운 인테리어 패키지도 신규 적용된다. 실제로 본 브라운 인테리어는 기대 이상으로 고급스러웠다. 쌍용자동차는 실내 고급감 강화를 통해 20~30대는 물론 40~50대까지 티볼리 고객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선보인 티볼리 아머의 판매 가격은 1651만원~2420만원이며, 스페셜 모델인 기어 에디션(Gear Edition)은 가솔린 모델 2195만원, 디젤 모델 2400만원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7월 19일(수요일) 음력: 윤 5월 26일

	오늘의 마음: 맑음, 평화롭다. 운세: 산의 정상에 올라 있는 운기이다. 정상이 끝나면 내리막이 시작된다. 만약을 대비하여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할 것이며, 복잡한 인간 관계도 청산하라.	길방: 서
	오늘의 마음: 해·번개, 갈등. 운세: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재해를 일으키는 쉬운 때이다. 특히 대인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오늘은 집수리나 이사, 혼인 등 좋은 행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싸늘, 소심한 날. 운세: 작은 일은 뜻대로 되지만 큰일은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현재는 어렵지만 궁극통이라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노력하고 정성을 기울이면 이루어진다.	길방: 북
	오늘의 마음: 쾌청, 성패. 운세: 한 분야에 몰입하여 타의 시선이나 관심이 개의치 않는 날이다. 힘은 있는데 정신적으로 외로워지고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진다. 영화감상도 좋다.	길방: 북
	오늘의 마음: 구름, 자유 추구. 운세: 성실함이 있어야 크게 갑니다. 허물이 없고 마음을 바르고 곧게 가져야 한다. 마음은 있어도 생각과 몸이 따르지 않는다. 취침 시 동복방향으로 머리를 향하라.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서 협력을 구하라.	길방: 중앙
	오늘의 마음: 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여유를 가지고 조용히 물러서서 노련하게 실수를 차리는 것이 좋다. 느긋한 기다림으로 열심히 뛰면 좋은 기회를 얻으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	길방: 중앙
	오늘의 마음: 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애매한 전망으로 일을 시작하다보면 중도에 좌절하게 될 수 있다. 오늘은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날이다.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쾌청, 힘찬 하루. 운세: 민둥산에 심어진 묘목들이 점차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운산을 초록으로 덮는 것처럼 점진적 발전을 할 때이다. 그러나 신중하고 문기를 거둬야 한다.	길방: 중앙
	오늘의 마음: 여명, 일출 직전. 운세: 서류문제나 보충 등에 있어서 보류되고 미루어지지만 한다. 금전의 융통이나 어려움의 해결은 양파에게 협조를 구하라.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이익이 생길 수 있다.	길방: 중앙
	오늘의 마음: 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진급이나 높은 자리를 바라는 날이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정성과 활동이 필요하다. 현재는 어렵지만 곧 돌파구를 찾겠다.	길방: 서
	오늘의 마음: 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자신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갈 기다려야 한다.	길방: 동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2, 3, 7, 8, (1, 5) 금일복권, 주식, 부동산매입 행운의 띠: 쥐, 용, 원숭이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소, 뱀, 닭	

한국ABC 인증 스포츠신문 발행부수 1위
스포츠동아는 성인광고를 받지 않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대중화…쏘나타 뉴 라이즈 PHEV

전기모드로 45km 주행…근거리 출퇴근 OK
연비 17.1km/L, 배터리 평생 보증…감세혜택

‘쏘나타 뉴 라이즈(New Ris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가 18일 출시됐다. 관심은 이 모델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시장의 대중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와 가솔린 차량의 장점만을 결합해 놓은 차세대 친환경차다. 매력이 넘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차종이라 판매량이 많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다.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쏘나타가 이 벽을 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주행거리가 많은 스타일이라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여러모로 경제적일 수 있다. 우선 평균 근거

리 출퇴근 시에 전기차로 사용할 수 있다. 가솔린 차량이 베이스지만 고효율의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어 한 번 충전하면 전기 모드만으로 45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근거리 출퇴근을 하는 유저라면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 출퇴근이 가능하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자동으로 가솔린 모드가 작동해 순수전기차를 탈 때처럼 주행거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다. 한 번 기름을 가득 넣으면 하이브리드 모드를 포함해 총 985km의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

성능도 준수하다. 최고출력은 156마력(ps), 최대토크는 19.3kgf·m이다. 2.0 GDI 엔진과 최고출력 50kW, 최대토크 205Nm의 고효율 영구자석형 모터 시스템이 함께 작동된다. 연비는 복합회차유 기준 17.1km/L, 복합전기 기준 4.8km/kWh다. 배



쏘나타 뉴 라이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18일부터 판매된다. 기존 쏘나타 뉴 라이즈의 디자인과 첨단 안전·편의 사양은 고스란히 적용되며, 배터리 평생보증 서비스 등을 통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터리 AS 걱정도 없다. 하이브리드의 PHEV 전용 고전압 배터리는 평생 보증이다.

판매가격은 프리미엄 3935만원, 익스클루시브 4256만원(세제 혜택 후 기준)이다.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 비싸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보조금 50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채권 및 공채 최대 200만원 매입 면제가 가능하다. 원성열 기자

쉐보레,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후원



타스틱영화제에 의한 차량을 제공하고 연례 문화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배우와 감독 및 주요 인사의 의전 차량으로 말리부와 임팔라를 제공하고, 영화제 기간 동안 크루즈와 카마로SS를 전시한다. 이벤트로는 영화제 현장과 부천CGV에 마련된 경품 이벤트존을 통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쉐보레 스파크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르노삼성자동차, 오토솔루션 2017 여름이벤트



르노삼성자동차는 8월31일까지 전국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및 협력 서비스점에서 ‘오토솔루션 2017 여름이벤트’를 진행한다. 여름철을 맞아 10월 31일까지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 수리비 지원과 무상 견인 서비스 등 특별 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수해로 인한 차량 파손으로 보험수리를 받는 고객은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받으며 유상수리(비보험)를 받는 고객은 부품과 공임을 포함한 수리비를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30% 할인 받을 수 있다. 원성열 기자



인사

미래에셋대우 <승진> △분당중앙WM(상무) 남재승 △IWC2WM(이사) 정병규

부고

◇김유성 씨 별세·지훈 신한금융투자 서귀포지점장 부친상=16일 제주시 동광로23길 15 제주영락교회, 발인 19일 오전 064-753-1231
◇지홍 씨 별세·문구(무역업) 씨 부친상·신희철 유진투자증권 e-Biz팀장 장인상=17일 고양 명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9일 오전 7시 031-810-5444

뉴스디자인 | 신하늬 기자

강주현의 퍼즐월드

			5		3			
		3	8		1	5		
	5	1				7	3	
2	6			9			4	1
			1		2			
3	1			8			6	2
	8	9				2	7	
		4	2		9	1		
			7		8			

			5		7		8	
4		2		3	6			
	9		4				1	
2				7		9		6
	8		6		4		2	
1		4		2				7
	5				6		3	
		9		1		5		8
	2		9		5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정답 (모바일) WWW.경품광고퀴즈.kr (모바일) WWW.매직스도쿠.kr

9 6 7 8 5 2 1 9 2 1	7 1 1 9 8 6 8 2 9
9 8 1 6 9 2 7 8 2	8 9 9 8 1 2 6 7 2
2 2 7 1 9 6 8 9	6 8 2 9 7 2 1 5 8
2 9 6 2 8 7 9 5 1 8	2 9 8 6 2 8 7 9 1
1 9 8 2 9 1 8 6 7	1 2 8 7 9 9 2 8 6
1 7 8 9 6 8 1 9 2	9 7 6 8 8 1 9 8 2
7 2 2 9 2 6 1 5 8	8 1 2 2 9 7 8 6 9
6 2 5 1 2 8 8 7 9	9 6 9 1 8 9 2 2 7
8 1 9 8 7 9 2 2 6	2 8 7 2 6 5 9 1 8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영언	대표전화 02 2020 0114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5	www.sportsdonga.com	
편집인	이성춘	편집부 02 2020 1032	경제부 02 2020 1062	(우)03187 서울특별시 중구 경계천로 1	
스포츠1부	02 2020 1041	뉴미디어전략팀 02 2020 1027		2008년 3월 3일	
스포츠2부	02 2020 1059	사진부 02 2020 1069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편집국장	이승욱			2008년 3월 24일 창간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 2020 104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인쇄 동아일보사			sol@donga.com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